



세계정당인들과 함께 국민을 대표하여 상선을 초대합니다.

임핑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 광주 - 동남명IC 구간 광복 동행로 관동 (명동출발점) IC 영수증 프린트 개시
- 무전시 9월 이후 불법요청정신제 실시
- 예약 : www.rpdynasty.co.kr 0801 320-7700

한국 선수단 오늘 베이징 입성

제29회 베이징 하계올림픽에 참가하는 한국선수단 본진이 1일 오전 9시30분 대한항공 851편으로 '2회 연속 종합 10위 진입' 꿈을 안고 베이징으로 떠난다.

선수단 본진은 이연택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과 김정행 선수단장, 이에리사 총감독 등 본부 임원 31명, 체조(11명)·역도(4명)·사이클(3명)·조정(7명) 등 4개 종목 25명을 포함해 모두 56명으로 이뤄졌다.

선수단은 임원 122명과 남녀 선수 267명 등 총 389명에 이르는 베이징과 거리가 가깝다는 점을 감안해 본진 규모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종목별로 편한 날짜를 골라 출국하도록 했다.

국가대표들은 노원구 공릉동 태릉선수촌과 송파구 오륜동 올림픽회관에 모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 이연택 KOC위원장의 인사말을 비롯한 간단한 출국행사와 기념촬영을 마친 뒤 베이징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선수단은 오전 10시35분(현지시간) 베이징에

본진 56명 오전 9시30분 출발

남은 선수단 종목별 출국 계획

5일 입촌식...박태환 3일 도착

도착, 대회조직위원회(BOCOG)가 제공한 버스편으로 선수촌으로 이동한다.

다음 날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에 도착하는 북한선수단과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선수단은 5일 오후 2시 입촌식을 갖고 현지 적응훈련에 들어간다.

본진에 앞서 요트 대표 5명은 이미 지난 8일 전지훈련을 겸해 미리 중국으로 건너갔고, 승마 대표 최준상(30·삼성전자승마단)은 25일 홍콩으로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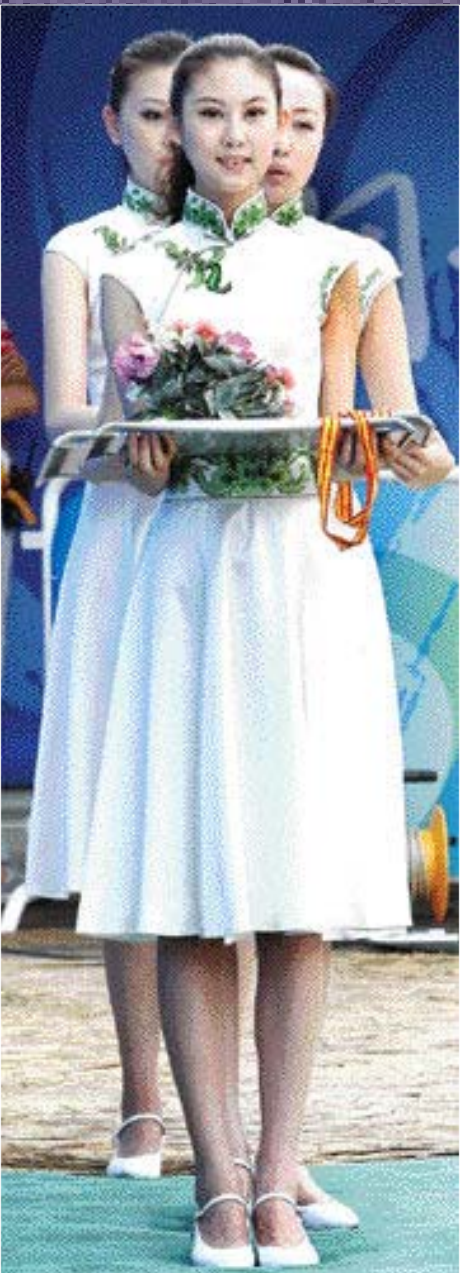
2일에는 사격 21명과 펜싱 7명이 떠나고, 한국 수영 사상 첫 금메달을 노리는 '마린보이' 박태환(19·단국대)은 3일 베이징으로 건너가 9일 저녁 400m 예선, 10일 오전 400m 결승을 앞두고 현지 적응 훈련에 들어간다.

3일에는 사상 첫 금메달 4개 싸움을 노리는 양궁 대표들과 축구 대표팀, 6일에는 남자 핸드볼과 유도, 복싱 대표팀이 현지로 떠난다.

무상왕의 불참으로 금메달을 예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역도 무제한급 장미란(25·고양시청)은 16일 금 사냥에 나서지만 여드레 전에 금지역을 방문경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8일 현지로 떠난다.

4년 전 아테네대회에서 금 9, 은 12, 동메달 9개 등 30개의 메달을 따내며 종합 9위에 오른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양궁, 태권도, 유도 등 전통적인 '메달밭' 외에 수영, 역도 등에서 금메달 10개 이상을 획득해 2회 연속 종합 10위에 오른다는 목표다. /연합뉴스

시상식 도우미들



개막식 행사 출연자들



메달 기대주

⑮ 근대5종 이춘현

타고난 '슈퍼맨' 체질 사상 첫 메달 노린다

'후회 없을 내 인생 최고의 그 순간을 위해...'

2008 베이징올림픽 근대5종 경기에 출전하는 광주체육중-광주체고 출신 이춘현(28·대한주력공사)의 미니 홈페이지에 들어 가면 눈에 띄는 글귀다. 이번 대회에 임하는 그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이춘현에게 베이징은 두 번째 올림픽 무대다. 첫 번째 도전은 너무나도 아쉽게 끝났다.

4년 전 아테네올림픽 때 많은 기대와 관심이 이춘현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럴 만했던 것이 이춘현은 올림픽 직전 한국 근대5종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2004년 5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에서 한국은 물론 아시아 선수로는 사상 처음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체대를 졸업한 2003년 7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4위에 그쳤지만 불과 1년도 안 돼 세계 2인자가 됐다.

이미 한 달 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1위를 차지, 아테네올림픽 본선 티켓을 딴 그에게 사상 첫 올림픽 메달에 대한 기대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정작 올림픽에서는 첫 종목인 사격에서부터 실수가 나와 결국 21위로 대회를 마쳤다.

하지만 그는 다시 덩고 일어섰다. 2005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한국 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32강이 겨루는 결선에 올랐다. 비록 20위에 머물렀지만 자신감을 회복하기에 충분했다. 2006년 9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월드컵 개인전에서 종합성적 5천588점으로 아테네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러시아의 안드레이 모이세프(5천596점)에 이어 2위를 차지, 다시 올림픽 메달 꿈을 키웠다. 2004년과 2005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인 안드레이우스 자드네프루브스키(리투아니아)와 천화(중국)도 이춘현의 밑이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후배 남동훈(24·국군체육부대)과 나란히 1, 2위를 차지해 베이징 올림픽에 나서게 됐



사격, 펜싱, 수영, 승마, 육상 다섯 종목에 하루에 치르는 근대5종은 워낙 변수가 많다. 국제대회 출전 선수들의 기량 차가 크지 않은 것도 한 이유지만 사실 대회마다 우승자가 바뀌는 것은 수많은 돌발 상황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큰 실수만 았다면 사상 첫 메달도 가능하다고 근대5종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184cm, 75kg의 이상적인 체격에 수영으로 다져진 체력, 집중력과 빠른 두뇌 회전을 겸비해 근대5종 선수로 대성할 자질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광주체육중 입학 당시 수영을 했던 이춘현은 2학년 때 2종(수영, 육상)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슈퍼맨 '의 길로 들어섰다.

이춘현은 지난 5월 헝가리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했지만 예선 탈락했다. 종아리 근육이 찢어져 한 달 가까이 운동을 못하고 몸을 정도 몸을 만든 뒤 나섰기 때문에 결과에 큰 의미는 두지 않았다. 대신 올림픽 출전 선수들의 전력을 탐색했다.

일단 지구력과 파워를 강화하는데 주력해 이춘현은 현재 마지막으로 기술 훈련과 컨디션 조절에 중점을 두고 있다. 비싼 값을 치르고 얻은 4년 전의 경험과 다시 4년 동안 흘린 땀방울을 사상 첫 메달로 보상받을 그 날을 기다리면서.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연합뉴스



올림픽 소식

비공개 개막식 리허설 2시간

성화 최종 점화는 빠져

○~ 황하 문명의 5천 역사를 담은 2008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식전행사 리허설이 30일 밤 메인스타디움인 귀자티위창(國家體育場)에서 처음 열렸다.

8월8일 오후 8시(한국시간 오후 9시) 귀자티위창에서 열리는 개막식 분위기를 고조시킬 식전 행사의 리허설은 이날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일반 시민들을 초청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장미우(張藝謀) 감독이 총지휘를 맡은 리허설 내용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중국 진나라 병사의 복장을 한 군인 수백여명이 동원됐고 형광색 옷을 입은 학생들, 선녀풍 옷에 깃털을 장식한 10대 소녀 등이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막식의 하이라이트인 성화 최종 점화는 리허설에서 빠져나갔다.

'무한도전'팀 올림픽 중계

○~ 개그맨 유재석이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MBC TV '무한도전' 녹화를 위해 여자 핸드볼 경기 중계석에 앉았다.

MBC의 한 관계자는 "유재석 등 '무한도전' 출연진은 17일 베이징으로 떠나 19일

지 현지에서 녹화를 할 예정"이라며 "출연진 가운데 유재석은 해설자, 캐스터와 함께 17일 오후 여자핸드볼 경기리전을 중계할 계획"이라고 30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해설자와 캐스터가 특별 출연자 자격으로 중계석에 앉은 유재석에게 간간히 질문을 던지고 이에 유재석이 답하는 형태로 중계가 진행될 것"이라며 "다만 핸드볼은 경기 진행이 빠른 만큼 유재석이 많은 분량의 코멘트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한도전' 팀은 경기의 중계 외에 올림픽 경기장 안팎을 오가며 다양한 이벤트를 벌일 예정이다. '무한도전' 팀에는 김태호 PD, 카메라 감독, 유재석 등 3명에게 AD카드가 발급된 상태다.

한국심판 16개 종목 23명

○~베이징올림픽을 누빌 한국 심판은 모두 16개 종목에 걸쳐 23명.

이들은 올림픽에서 사상 첫 종합우승을 노리는 중국이 안방 텃세를 이용해 편파 관정을 할 우려가 있어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기 때문에 여계가 무겁다. 심판 관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체조에서는 김대원(51) 대한체조협회 남자 기술위원장과 남승구(45) 한국체대 교수가 베이징을 찾았다.

